은행

Sector Issue Brief 2026. 04. 13

양호한 1Q 대출성장률 : 견조한 기업대출 성장

Check Point

- 기업대출 중심 대출성장세 지속
- 1Q 상장은행 대출성장률 1%대 초중반
- 은행권 조달부담 크지 않아 1Q 이후로도 긍정적 이자이익 흐름 예상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1~3월 기업대출 중심으로 예금은행 총대출 0.9% 성장. 상장은행 평균 1%대 초중반 대출성장률 예상

▶ 3월 예금은행 총대출(정책대출 포함)은 2,560조원으로 2월 대비 8.3조원(0.3%) 증가했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3.7% 증가. 1~3월 누적 대출증가율은 0.9%로 나타났으며, 전분기(0.3%)와 전년동기(0.5%)대비 상승 폭이 확대됨. 이는 1Q 중 가계대출 증가율은 -0.1%에 그쳤으나 기업대출이 1.7%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

▶ 상장은행 기준으로 1분기 중 대출성장률을 파악해 보면 전체 예금은행 대비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주요 시중은행은 1분기 평균 1.1%의 대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은행의 경우 이보다 높은 1.8% 수준으로 추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가계대출 성장률은 부진했으나 기업대출 성장률이 평균 2%대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1~2월 마이너스 순증을 기록했던 가계대출은 3월 들어 소폭 증가세(+0.5조원)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의 관리강화 기조로 정체되었으나, 기타대출이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 4월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26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1.5% 이하로 설정함에 따라 향후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기조는 이어질 전망

▶ 반면 기업대출의 경우 3월 중 0.6%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생산적금융/포용금융 정책에 따른 은행들의 영업강화 기조 영향으로 향후에도 높은 증가세 유지 예상

정기예금 증가율 낮으나 결제성예금 유입 견조. 여수신 환경은 1Q 이후로도 이자이익 확보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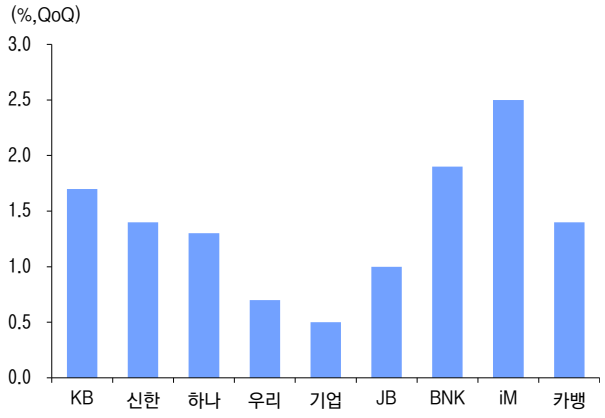
▶ 최근 수신측면에서 특이한 사항은 시장금리 상승에도 정기예금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정기예금 증가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3월 정기예금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4%에 그치고 있으며,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89%로(2월 신규취급액 기준) 국고채 3년 금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 3월 중에는 정기예금 잔액이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유출 등으로 2월 대비 4.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를 은행권의 예금이탈 및 증시로의 머니무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정기예금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배경이 은행권이 가계대출 규제와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차원에서 대출증가율을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해 조달부담이 크지 않음을 방증하기 때문. 또한 결제성 예금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8%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실제 수신여건은 양호하며 조달비용 상승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상태로 파악

▶ 따라서 현재 은행권의 절대적인 대출성장률이 높지 못하나 1)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1%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2) 결제성 예금을 중심으로 안정적 수신기반이 유지되고 있으며, 3) 시장금리 상승이 적절하게 대출금리 인상으로 반영되는 동시에 조달(정기예금)금리 상승 폭은 제한되고 있어 이자이익 확보에 유리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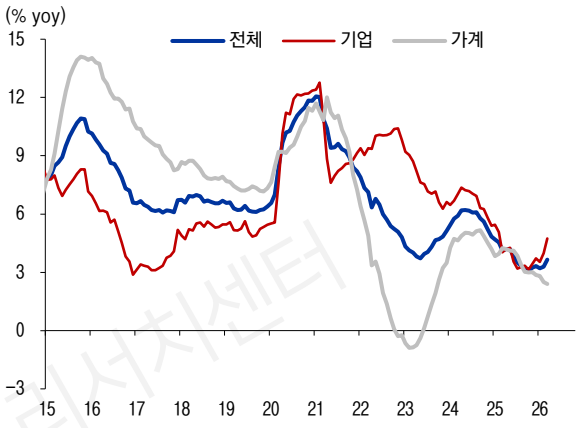
▶ 1분기 중 전체 상장은행의 이자이익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의 여수신 환경 감안 시 향후에도 이자이익 흐름은 긍정적일 전망

그림1 26 년 1 분깅 주요 상장은행 대출성장률 예상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은행권 부문별 대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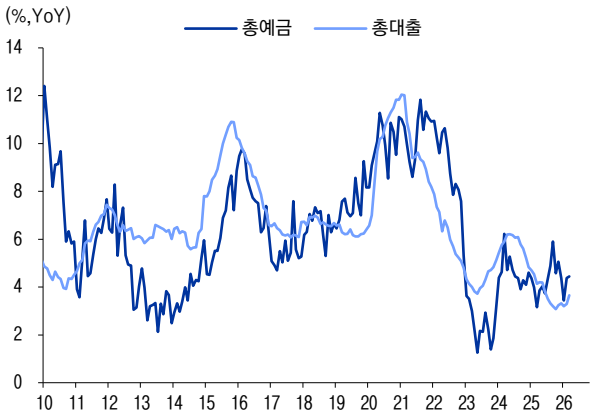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 증가율과 국고채 3 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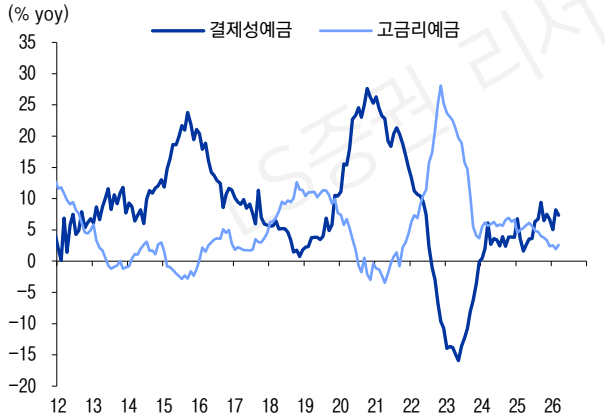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은행권 총예금과 총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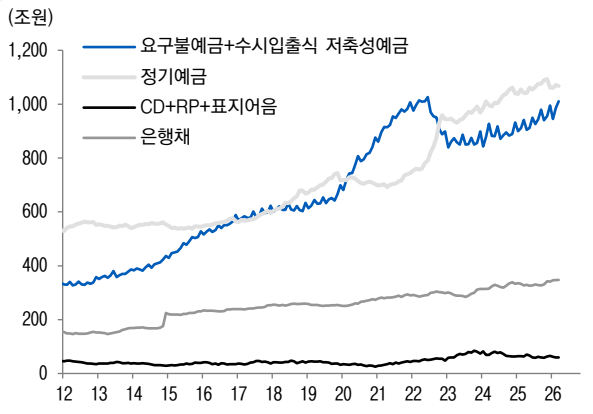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은행권 부문별 수신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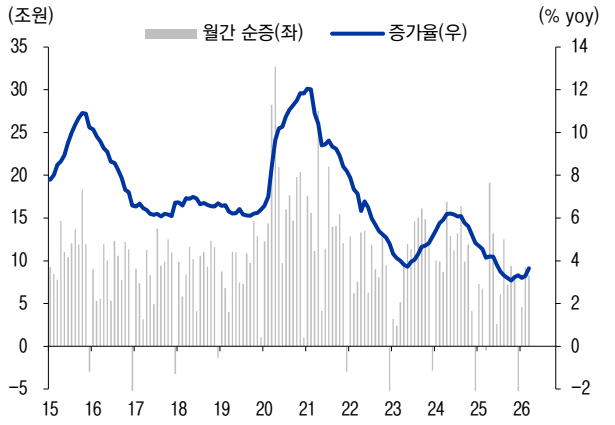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은행권 부문별 수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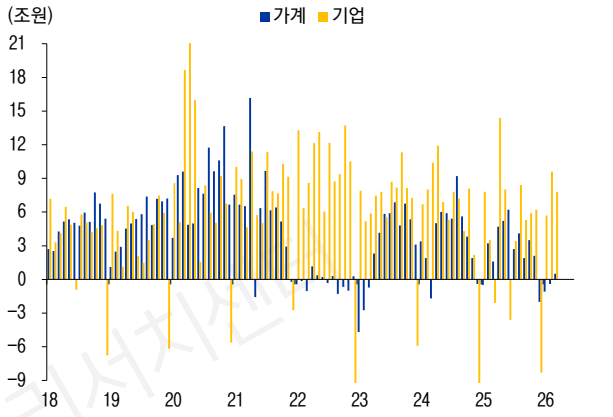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은행권 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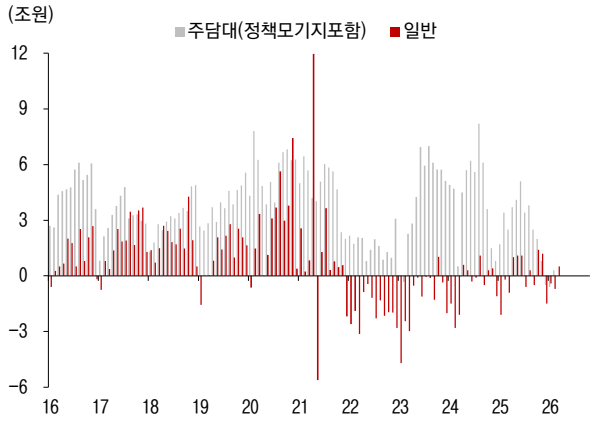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월간 순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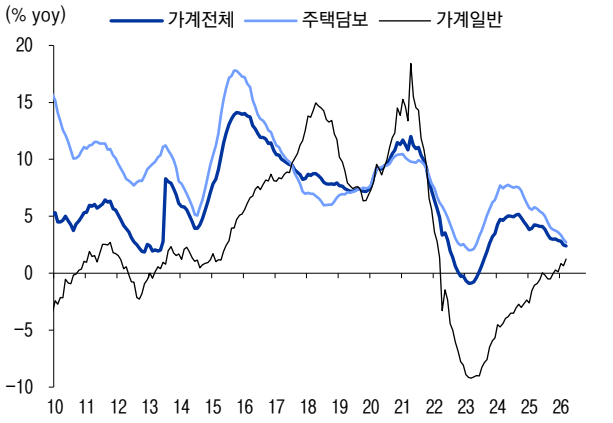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가계대출 부문별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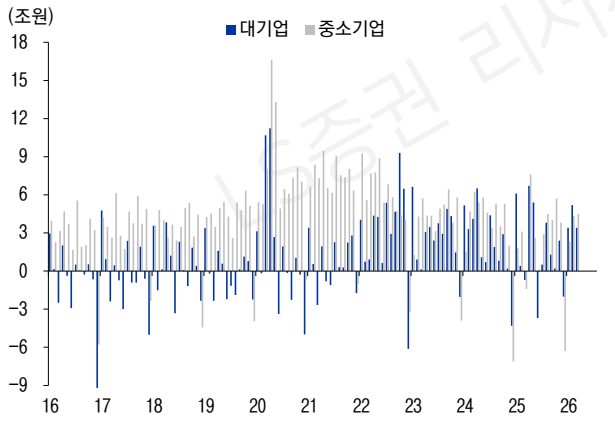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가계대출 부문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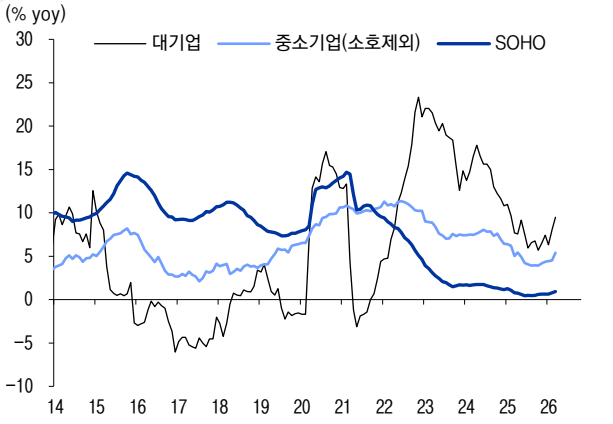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기업대출 부문별 순증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기업대출 부문별 증가율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9.3% 11.7%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4. 01 ~ 2026. 0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